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총력

전주시, 양돈농가별 담당공무원 지정 현장점검·농장 주변소독 실시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중인 가운데, 전주시가 차단방역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도 치료약도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과 베트남, 북한 등 주변국

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주시역 양돈 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농가 자체방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시는 양돈농가 담당관계 운영으로 농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주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동원해 주

1회 이상 농장 주변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 유입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유입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전 시민의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시 불법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천년전주회'는 10일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구입한 선봉기 50대와 백미 50포를 전주시에 후원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지만 힘 보태요'

천년전주회, 전주시에 선봉기·쌀 등 사랑의 성품 기부

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천년전주회'는 10일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선봉기 50대와 백미 50포를 전주시에 후원했다.

천년전주회는 2017년 모임이 설립된 이후 해마다 동 주민센터에 성금

을 후원하는 등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희망을 갖도록 이웃사랑 나눔을 펼치고 있다.

이상선 천년전주회 회장은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함께 사는 행복한 전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

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좋은 분들이 있어 전주가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는 것 같다"며, "후원해주신 천년전주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청년들의 대인관계 고민, '해우소'에서 해결

전주시, 내달까지 심리코칭 프로그램 운영

청년들의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청년심리코칭 프로그램인 '청년고민해우소'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청년소통공간 비빌 2호점인 커피마리안(덕진구 백제대로 652)에서 '청년고민해우소'를 2주에 1번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문제와 성

향에 따른 사회적 강화훈련과 참여자 간 집단상담 등으로 진행되며 유사한 문제를 가진 청년들이 겪어온 내적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자기주도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매회 △의사소통 기술 향상 △스트레스 관리법 △자존감 되찾기 △공정가치관 형성 등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간 소통을 희망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싶은 전주청년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5023)로 신청하거나 네이버폼(naver.me/xbBhTZU)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청년소통공간 비빌은 전주시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맘껏 떠들고 쉬며 교류할 수 있도록 시와 민간영역가 협약을 통해 모임을 위한 장소를 찾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로, 현재 완산구 2곳과 덕진구 2곳을 포함한 총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 '1등급'

전북대병원, 8회 연속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는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률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평가 시행 첫해부터 올해 발표된 8차 평가까지 8회 연속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아 항생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병원으로 인정 받았다.

최근 발표된 8차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예방적 항

생제 사용이 권고되는 19개 수술을 시행한 병원을 대상으로 각 수술별 항생제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환자관리 등을 평가했다.

전북대병원은 평가결과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절개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갑상선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허니아수술, 백내장수술 등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조남천 병원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항생제의 적정 사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전 의료진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적인 항생제 투여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생후 4개월 된 영아 아동학대 의심 신고

뇌출혈 증세 이어 몸에도 멍 자국 발견

경찰, 친부 조사... 친부 "잘 모르겠다"

4개월 된 영아가 뇌출혈 증세를 보여 경찰이 친부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경 뇌출혈 의심 증세를 보인 A모(생후 4개월)양을 진료한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부터 '정황상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뇌출혈 증세 뿐만 아니라 몸에서 멍 자국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

졌다. A양 친부는 경찰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친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의뢰해 A양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힐링센터 투자 사기' 7억 챙긴 50대 구속

힐링센터 건립에 투자하면 노후보장과 수익금을 나누겠다고 속여 수익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모(55)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모(54)씨 등 9명의 투자자를 유치, 투자금 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문학 강의를 주제로 SNS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과거 집필한 이력을 내세워 서울 명문대를 졸업한 작가인 척 행세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속여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형편이 어려워진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기부금을 추가 납입하지 않는 회원들은

SNS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다른 투자자에게는 '기부금 포기각서'를 받아 냈다.

그는 또 범망을 피해가려고 피해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대해서 '투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일 뿐, 투자금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물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인후2동 적십자회 인송경로당 중식봉사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적십자회가 인송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인후2동 적십자회는 약 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손수 준비한 국수와 과일, 떡을 나누며 따뜻한 정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인후2동 적십자회는 정기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중식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살맛나는 인후2동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화순 인후2동 적십자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인후2동이 따뜻한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병노 인후2동장은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적십자회에 감사하며 앞으로 지역 사회의 온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후2동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식당 침입 20대 절도 미수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20대가 금품을 못찾고 미수에 그친 채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A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자정쯤 남원시내 모 식당에 들어갔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오후 4시경 남원시내 한 도로 앞에서 1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있다. /강석훈 기자

도로표지판 절도 50대 검거

공사현장에서 도로표지판 4개를 훔친 50대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5분경 무주군 무주읍 모 도로 설치 공사장에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도로표지판 4개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현금지급기 현금 훔친 30대 검거

현금지급기(ATM)에 놓고 간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은행 현금지급기에 놓여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